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 연구

김경애

국문초록

‘여인 수난이야기’는 우리 문학사에서 담화를 이루거나 구조화하는데 작용하는 하나의 내적 형식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 이야기 형식은 설화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모두에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우리 고유의 특징적 담화 양식으로 볼 만하다.

여인 수난이야기는 말 그대로 여인이 수난을 겪는 것을 중심사건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수난’이라는 용어의 성격상 일종의 수동성을 전제한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본인이 자초했던 그렇지 않았던 ‘원치 않은’ 수난을 당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수난이나,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이러한 이야기 형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난의 성격과 해결 양상을 규명하는 일은 작품 자체의 논리에 접근하는데 중요하다.

이 글은 신소설을 대상으로 여인 수난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하여 밝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지배한 당대의 규범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에 접근한다. ‘수난의 성격과 대응 방식’을 살핀 결과,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과 수난의 성격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 점은 여인이 수동적 인물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또한 여인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 반드시 조력자가 존재한다. 이 점은 여성을 남성에 의하거나 남성을 통해 행복해지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맥락

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수난의 해결 과정과 원리'에 주목하여 살핀 결과, 대부분이 '권선징악'의 지배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작품 내의 대립소를 중심으로 여인 수난이야기의 선악 개념을 분석한 결과 선은 악에 비해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악은 본성적인 것, 무지몽매함, 어지러운 세태, 땅에 떨어진 도덕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접근하면, 신소설의 여인 수난 이야기는 역사적 문맥을 도외시하고 독자에게 운명론적이고 순응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가 지닌 한계점이다.

이 글은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로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여인 수난이야기는 우리 문학사에서 그 전통이 오랜 만큼 이를 통시적·공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혹은 문학적 맥락을 읽기에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된다.

1. 서론

'여인 수난이야기'¹⁾는 우리 문학사에서 담화를 이루거나 구조화하는데 작용하는 하나의 내적 형식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 이야기 형식은 설화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모두에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우리 고유의 특징적 담화 양식으로 볼 만하다. 이러한 점은 이

1)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형식을 명명함에 있어 '여인 수난이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가련한 여인이야기'라고 할 경우 '가련한'이라는 수식어가 독자의 감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주인공이 고난을 받으나 그것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작품들 - 「비파성」, 「추월쇄」, 「소양정」 등 - 과 스스로 고난을 자초함으로써 고난의 성격이 의문시되는 작품들 - 「장한몽」, 「천원정」 등 - 을 묶어서 논의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수난 받는(당하는) 여인이야기'로 할 경우 용어의 성격상 부당한 수난만을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인공이 이른바 '당해도 마땅한 수난'을 겪는 경우를 범주에 넣어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여인 수난이야기'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단 '여인 수난이야기'라고 할 경우, 고난이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 김영한의 「부용현」처럼 단순한 혼사 방해의 경우가 문제시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범주에 넣어 논의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나의 갈래로 묶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²⁾

여인 수난이야기는 말 그대로 여인이 수난을 겪는 것을 중심사건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수난'이라는 용어의 성격상 일종의 수동성을 전제한다. 즉,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본인이 자초했건 그렇지 않았건 '원치 않은' 수난을 당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수난이나,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이러한 이야기 형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여인을 '가련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³⁾ 즉,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수난은 작품 자체의 논리를 통어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

이런 점에서 수난의 성격과 그 해결 양상을 규명하는 일은 작품 자체의 논리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본고는 여인 수난이야기를 살핌에 있어, 수난의 성격과 그 해결 과정을 밝히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즐긴 당대인들의 의식 및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여인 수난이야기를 우리 고소설과 근대소설에 두루 존재하는 하나의 이야기 양식으로 접근한 연구는 최시한 「가련한 여인 이야기 연구 시론」(『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이 최초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의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접근이므로, 중심인물이 어떠한 인물이고 어떻게 서술되는가에 일차적인 초점이 놓인다. 따라서 여인 수난이야기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수난의 성격과 해결 양상의 규명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애정소설이나 가정소설 등의 갈래로서, 혹은 혼사장애나 남녀이합, 여성 수난 등의 모티프로서 다루어진 연구가 있지만, 논의의 목적과 방법이 다를뿐더러, 우리 고소설과 신소설 및 근대소설을 두루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는 의미망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혼사장애의 모티프는 용어의 성격상 혼전의 장애를 중심 사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므로, 혼인 이후 벌어지는 수난을 다루는 작품들의 경우 적절치 않은 점이 많다.

3)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수난'은 여인이 어떠한 인물로 완성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과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이 글은 이른 바 개화기 신소설⁴⁾을 대상으로 여인 수난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하여 밝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지배한 당대의 규범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에 접근한다. '제2장 수난의 성격과 대응 방식' 부분에서는 수난의 성격을 분석해 내고, 인물이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수난의 성격과 인물의 특성을 밝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제3장 수난의 해결 과정과 원리'에서는 여인이 어떤 방식으로 고난에서 벗어나고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또 주인공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수난의 해결 양상과 그것을 통어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제4장 결론'에서는 위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생산한 당대인들의 문화적, 이념적 맥락을 읽어내는 작업을 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문학사회학적 접근의 형태를 취하되, 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서사학으로 접근해 보고자하며,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1968)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2. 수난의 성격과 대응 방식

여인 수난이야기는 말 그대로 여인이 수난을 겪는 것을 중심사건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신소설에서 여인 수난이야기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⁵⁾ 이러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당대에 많은 독자층을 가진 친숙한 이야기 틀이었음

4) 이 논의에서는 번역, 번안 소설도 '신소설'이라는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한다. 그 이유는 당대에 번역된 작품들이 이야기의 줄거리만 빌려오고 재창작되는 경우가 많아 창작 신소설과의 경계를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5) 을유문화사 본 『한국신소설전집』(1968)의 경우 총 65편중 대략 34편 정도가 여인 수난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른바 '역사전기류'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가 드물다. 이러한 점은 역사전기류와 여인 수난이야기의 목표나 의도, 각 텍스트가 대상으로 삼는 독자층이 서로 달랐음을 짐작케 한다.

을 짐작케 한다.

여인 수난이야기의 줄거리를 뼈대만으로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1) 여인이 고난을 겪는다.
- (2) 고난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⁶⁾

이야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첫째 항과 둘째 항의 목적 및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의 '여인이 고난을 겪는다' 부분은 독자의 관심을 모으고 감정이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2)는 이야기의 주제적 차원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여인 수난 이야기를 위와 같이 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품을 지배하는 규범의 성격을 밝히고, 이것이 작품 구조화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항목은 수난의 성격을 분석해 내고, 인물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지를 살핌으로써, 두 번째 항목은 어떤 식으로 고난에서 벗어나거나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주인공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 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수행될 것이다.

먼저 수난의 성격을 분석해 내고, 여인이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살펴본다.

6) 여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상정된다.

- 첫째, 고난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경우 -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 둘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경우 - 「귀의 성」의 춘천집, 「화의 혈」의 선초, 「두견성」의 혜경 등.
 - 셋째, 고난에서 벗어났으나 불행해지는 경우 - 「화중화」의 초월, 「명월정」의 채홍 등.
 - 넷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행복해지는 경우
- 여기서 네 번째 항목은 신소설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대기 형식을 벗어나는 근대 소설로 갈수록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항목을 설정한 것이다. 첫째 항목은 고소설의 지속적 면모가 크고, 둘째, 셋째 항목은 신소설만의 특징적인 플롯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제2절 '해결 양상과 원리' 부분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여인이 고난을 겪는다’로 간추려진 부분은 이야기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어떤 여인이 어떤 고난을 겪느냐, 즉 여인의 성격 혹은 욕망과, 수난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수난의 성격에 따라 작품이 형상화하는 가치와 이념도 달라진다.⁷⁾

먼저 신소설에 나타난 수난을 항목별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신소설에서 여인이 받는 수난은 다음 항목들로 요약될 수 있다.⁸⁾

- (A) 본처나 첩, 혹은 계모 때문에 생기는 수난, 즉 가정적인 것.
- (B) 전쟁, 타자 등 가정 외적인 데서 비롯된 수난, 일부 사회적인 것으로 불 소지가 있는 것.
- (C) 혼사 장애 등 애정적인 수난.
- (D) 자신의 신념, 혹은 욕망 때문에 생기는 수난.

위에서 (A)와 (B)는 대부분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적 수난의 형태로 나타난다. 애정적 수난인 (C)는 그 안에서 다시 두 종류의 수난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완전히 외적인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족 외적 세력이 주인공의 애정이나 혼사를 방해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가족 내의 세력이 주인공의 혼사를 방해하여, 주인공이 부모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 등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추월색」 등이 이에 속한다.

7) 최시한은 “수난이 애정적인 것 위주이면 애정소설, 가정의 유지와 변영의 문제이면 가정소설, 또 사회적 모순과 깊이 관련된 것이면 리얼리즘 소설의 경향을 띠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시한, 앞의 글, 56쪽)

8) 『한국신소설전집』의 여인 수난이야기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정적 수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것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적 수난이 중심 사건인 것이 약 14편, 애정적 수난이 중심 사건인 것이 약 7편, 애정·가정 수난이야기가 2편, 사회적 수난이 중심 사건인 이야기가 9편, 자신의 욕망 및 신념에 관계된 수난이 2편으로 그 빈도가 가장 낮았다.

(C)의 두 번째 경우, 자신의 의지 등 내적인 요인 때문에 수난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인이 받는 수난은 가정 밖의 세계, 즉 가족 외적인 데서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내적 수난의 양태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역시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적 수난으로 봄이 타당하다.

(D)는 주인공이 자신의 신념, 혹은 욕망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이다. 작자 미상의 「천영정」, 조일제의 「장한몽」 등이 이에 속한다. 「천영정」에서 기생 홍련은 광동(狂童)으로 지목 받는 심화순을 보고 “누구야 뭐라든 장차 크게 되리라 믿고” 가난한 집에 들어가 수난을 자초한다. 「장한몽」의 심순애는 편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랑하는 이수일을 버리고 김중배를 선택함으로써 수난을 자초한다. 즉, 내적 요인에 의해 수난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주인공이 수난을 자초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개 양상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천영정」에서 홍련은 자신의 신념에 때문에 수난을 당하지만, 그것에 대해 갈등하거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도전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장한몽」에서 심순애는 물욕 때문에 이수일을 버리고 난 후, ‘돈’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 심순애의 수난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박해하거나 모함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즉, 그녀가 겪는 수난은 이른바 내적 수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수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 중 「장한몽」은 수난의 성격 면에서 가장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한몽」을 제외하면 신소설의 수난은 대부분 외적인 데서 비롯되는 외적 수난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난이 이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인물이 사건을 일으키는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도 요인이 있다.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들인지 알아내기 위해, 여인들의 욕망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⁹⁾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개 애정이나 가족에 관계된 욕망을 지닌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러한 점

에서 주인공이 학업을 계속하려는 것이 수난의 실마리가 되는 김교제의 「모란화」나 주인공의 재혼에서 수난이 비롯되는 작자미상의 「홍도화」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신소설에서 여인들은 욕망을 갖긴 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수난의 성격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수난을 겪는 경우는 드물다. 신소설에서 여인들의 욕망은 대부분의 경우 내적인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없다. 수난의 성격을 여인의 욕망과 연결시켜보면 신소설의 이야기 전개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여인의 욕망이 선행하여 그 욕망으로 인해 수난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모란화,¹⁰⁾ 홍도화, 장한몽은 예외에 속한다¹¹⁾). 즉, 수난이 외부에서 주어지자 여인은 비로소 욕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인은 수동적 성향을 지닌다. 욕망이 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은 외부에서 부여된다. 따라서 이들의 수난은 대부분 외적인 것에 국한되며 타자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¹²⁾

역으로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하다. 즉, 이러한 이야기 틀에서 인물의

9)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여인의 욕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가) 혼약(애정)을 지키거나 성취하려는 욕망
- (나) (외적 요인으로 인해) 몰락한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욕망
- (다) (내적 요인으로 인해) 뒤틀려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
- (라) 신학문(혹은 계몽)을 하고자 하는 욕망
- (마) 재혼하려는 욕망

이 중 '몰락한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욕망'은 파탄된 가정을 경제, 사회적으로 회복하려는 욕망뿐 아니라, 가정을 몰락시킨 자를 찾아내 응징하려는 욕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10) 신학문을 하겠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모란화」의 경우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는 않는다.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시가에서 쫓겨난 앞부분은 대화로 암시될 뿐이고 주인공 정숙이 받는 고난은 주로 친정에 새로 들어온 계모의 흥계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그려진다.
- 11) 이런 점에서 내적 수난의 성격이 강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성격이 큰 「장한몽」은 주목될 만하다. 그러나 이 소설이 일본 번안소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전통적 이야기 구조의 연장선상에 놓고 논의하기는 어렵다.

성격 및 기질은 이야기 전개와 확장에 그다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착하고 예쁜 여주인공'¹²⁾이 나오는 경우 수난을 겪고 행복해진다는 비교적 자명한 결말을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인물의 교육정도가 어떠한지, 어떤 기질적 성향을 가졌느냐, 어떤 생각의 소유자냐 하는 것들은 이야기 전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인의 성격과 수난과의 관련성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혈의 누」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혈의 누」는 옥련의 수난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청일전쟁이다.¹³⁾ 「혈의 누」의 특이한 점은 이 소설이 한 여인의 내적 성장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재 면에서 새로운 시도에 속한다. 그러나 인물이 그럴듯하게 형상화되지 못하여 이런 구도는 필연성을 잃고 있다.

어- 세월도 쉽고느. 일본서 미국으로 건너오던 날이 어제고고느. 니가 일본 디 판 잇슬 쎄에 심상소학교 졸업하던 날은 호로 밤에 두 번을 죽으려고 호았더니 오 날 또 엇저흔 팔자 사나운 일이느 업슬런지. 니가 죽기가 시려서 죽지 아니한 것도 아니오, 공부하고자 호야 이곳에 온 것도 아니라. 디판 항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물에 썩러지려 홀 쎄에 한 되는 마암으로 쏘이 되야 그릇튼지 우리 어머니가 날더러 죽지 말라 호시던 소리가 아무리 쏘일쎄라도 녁혀호기가 침시호흔 고로 슬픈 마음을 진정하고 이 목숨이 다시 사라느서 너른 천지에 붓칠 곳이 업노지라.¹⁴⁾

12) 신소설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경우 신념 자체의 수난, 즉 내면적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

13) 신소설의 경우 여인은 주로 '꽃'으로 은유된다. 그러나 어디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묘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곱다', '어여쁘다', '아름답다' 등의 직서적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국립국어연구원이 조사한 「신소설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국립국어연구원, 1994)에 따르면 '곱다'는 13회, '어여쁘다'는 33회, '아름답다'는 27회 사용되고 있다.

14) 신소설에서 국내의 세력관계가 원인이 되어 주인공이 수난을 겪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점에서 「혈의 누」는 사회 소설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지닌다.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옥련의 학문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내적 의지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야기 구조상 ‘수난의 대가로’ 주어진다. 내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종결까지 옥련의 내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옥련이 조선 부인의 교육에 투신하는 동기 또한 구완서에 의해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있다.

없었던 부모를 되찾아 행복하게 되는 외적 수난에만 초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제재의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야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인의 성격과 수난의 성격, 다시 말해서 인물과 사건이 긴밀한 관계를 지니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술체 속에서 인물의 정체성은 사건들의 ‘순서 혹은 연결짓기’인 플롯에 의해 구현된다. 따라서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여인의 정체성도 그녀가 겪는 수난의 종류와 성격, 수난에 대한 태도나 대응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¹⁵⁾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사건을 일으키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인물들이라기보다, 수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조차 수동적 자세를 나타내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수난을 해결하는 데도 조력자 등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물도 간혹 눈에 띄는데, 「장한몽」, 「설중매」 등 번역, 번안 소설이 주로 이에 속한다. 수난에 대한 여인들의 대응 방식이 어떠한 지를 중심

15) 김윤식 외 편, 『한국 개화기 문학 총서 - 신소설·번안소설 1』(아세아문화사, 1978), p.76에서 인용.

16) 폴 리콥르는 “한 인물의 지속적인 성격 - 이른바 서술적 정체성 - 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물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플롯만이 역동적인 정체성을 구성한다”(폴 리콥르, 「서술적 정체성」, 주네트 외, 석경정 외 엮음,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술, 1997), 61쪽)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야기 속의 여인이 어떤 정체성을 지닌 어떤 인물인가는 그녀가 겪는 수난을 통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인의 정체성, 더 나아가 독자와의 관계에서 구현되는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플롯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으로 여인 수난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성격 및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수난에 마주쳤을 때 그저 '죽으려고만' 하는 인물들, 수동적 자세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인물군이 있다. 「귀의 성」, 「치약산」, 「빈상설」 등 18편 정도가 이 경우인데, 이 경우 여인은 아무런 주체적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주인공의 행위나 의사를 결정해 주는 보조자가 존재하는데, 계집종이라든지 우연히 만난 노승 등이 그들이다.

두 번째, 수난이 닥쳐왔을 때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인물군이 있다. 「추월색」, 「비파성」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경우 인물들은 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 기생이 된다거나, 가정을 몰락시킨 자를 찾아내 응징하는 등 다소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수단이 대부분 '가출'이나 '자결'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주인공이 '가출' 하는 경우는 집안 내에 혼인 반대 세력나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가출은 단지 갈등을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주인공이 집을 나갈 경우 문제의 해결은 집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력자 등의 도움으로 얻은 집밖의 결과물에 의해 성취된다. '자결'의 경우도 문제에 대한 회피라는 점에서는 '가출'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여인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수난에 대처하는 경우이다. 「설중매」, 「장한몽」이 이 경우에 속하는데, 두 편 모두 번안소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설중매」의 경우 주인공 매선은 능동적으로 고난을 헤쳐나간다. 「장한몽」의 여주인공 심순애도 어떻게든 이수일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갖은 애를 쓴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소설에서 여인들은 수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장한몽」을 제외하고는 수난을 거치면서도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¹⁷⁾

17) 이러한 점이 여인을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로 만들고 있다.

또,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의 여인들은 대부분 수난을 통해 완성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력자’ 등 그녀를 수난으로부터 구해내는 작품 내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여인은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고 주로 남성인 조력자에 의해 구원받게 된다. 이것은 여성을 그러한 인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맥락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겠지만 그녀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도덕성’의 정도이다. 즉, 그녀는 단지 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텍스트는 독자인 여성을 몰주체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을 지닌다.

3. 수난의 해결 양상과 원리

이 단락에서는 여인이 어떻게 고난에서 벗어나는가, 혹은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들이 행복해지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의미와 이를 지배하는 내적 규범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텍스트는 독자의 공감을 염두에 두고 짜여질 것이므로, 이것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성격과 많이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설명해낸다면 우리의 문화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일부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여인은 수난을 통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 여기에는 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가지 경우가 상정된다. 그러나 신소설에서 ‘여인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행복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 번째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소설에 나타나는 결말의 양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a) 여인이 고난에서 벗어나 행복해진다.

- (b) 여인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해진다.
- (c) 여인이 고난에서 벗어났으나 불행해진다(죽는다).

신소설의 결말 양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a)이다.¹⁸⁾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소설의 여인들은 주체적 행위자가 드물기 때문에, 여인이 고난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도록 돕는 소설 내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조력자에 의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경우이다. 「혈의 누」의 구완서, 「빈상설」의 승학 등이 조력자들이다. 이들은 이야기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여인이 위기에 처하자 나타나 여인을 수난으로부터 구해낸다. 이들은 주로 남성인데, 이들을 통해 여인은 수난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들의 도움으로 행복해진다.

조력자의 도움 이외에 가해자의 악행이 '드러나게 하는' 장치도 종종 쓰이는데, 조력자의 도움과 겹치거나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구속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밖에, 가해자의 참회나 개심을 통해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홍도화」, 「부벽루」, 「재봉춘」 등). 이 경우도 조력자는 존재하는데, 여인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여인을 구해 내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인이 행복해지는 경우 반드시 조력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인이 '조력자를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녀의 행복은 이야기 구조상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설 내적 원리의 차원에서 여인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도덕성'이다.¹⁹⁾ 여인의 행복은 그녀가 얼마나 선하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인물이 어떤

18) 『한국신소설전집』의 경우 약 34편중 6편을 뺀 28편이 이 유형에 속한다.

19) 이 문제에 관해 조동일은 신소설과 고소설에서 고난은 우연히 생기며, 도덕적 당위성에 의해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서울대 출판부, 1983), p.152 참고)

과정을 겪고, 얼마만한 내적 완성을 이루었느냐는 문제되지 않고, 사건이 전개, 확장되면서 여인의 정체성도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여인은 수난을 통해 완성되지도 않을뿐더러 남성인 조력자를 통해 수난을 극복한다. 여기에는 여성을 그러한 인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맥락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인은 본성적으로 선하기만 하면, 수난에서 벗어나 행복해진다. 이런 텍스트는 독자인 여성을 몰주체적으로 봉합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독자들에게도 그러한 이념을 주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

(b)는 「귀의 성」, 「화의 혈」, 「두견성」 등에서 나타나며 고소설에는 없는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 유형에서 여인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희생된다. 여인이 희생되는 것은 (a) 유형과 달리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다. 「귀의 성」의 길순은 본처의 흥계로 살해된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도와줄 ‘현명한’ 조력자가 없다. 아무런 악의가 없는 그녀의 죽음은 가련하기 짝이 없다. “가련한 여인이 결국 불행하게 파멸될 경우, 게다가 그녀가 수난 당하는 게 세계의 타락성 때문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면 더욱, 그 이야기는 세계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비극적 구조를 지니게 된다.”²⁰⁾ 「귀의 성」의 전반부는 당대 처/첩 관계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의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기에 아버지 강동지의 복수담을 덧붙여 구조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련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구조가 당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당대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역으로 당대의 논리가 이야기의 후반부를 ‘생성했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이 소설의 후반부는 ‘악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징악(懲惡)의 논리이다. 따라서 이 유형도 (a)와 마찬가지로

20) 최시한, 앞의 글, p.61.

로 대부분 권선징악적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선우일의 「두견성」은 주인공 혜경이 가련하게 죽는 것으로 종결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이야기는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 중 권선징악의 구조를 갖지 않은 예외적 작품의 하나이다. 더구나 아들을 멋대로 휘두르려는 어머니와 며느리의 대립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는 점 등 근대적 요소가 더러 엿보인다.

(c)는 여인이 고난에서 벗어났으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화중화」, 「명월정」, 「동정추월」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중 「화중화」와 「명월정」의 주인공 여인은 모두 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화중화」의 초월은 김해봉의 기생첩으로 온갖 고난 끝에 옥씨 부인과의 잘 지내며, 가세를 일으키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지만 “자기 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살한다. 「명월정」의 채홍도 온갖 고난을 겪고 자식 없는 허원에게 자식까지 낳아주지만 “학생시절에 첩 노릇 안 하기로 맹세한 것을 생각하고” 자결한다.

이들은 첩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 자살한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의 죽음은 (b)와는 달리 ‘가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여인이 자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텍스트 내적으로 이들의 죽음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텍스트는 ‘첩은 없어야 한다’ 혹은 ‘첩은 전혀 쓸 데 없는 존재이다’ 라는 논리를 구현한다. 즉,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본처-선/첩-악’ 이라는 논리에 의해 희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구현하면서, 첩을 악인으로 설정하지 않고 선한 주인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구조적 필연성을 잃고 있다.

「동정추월」은 여인이 마지막에 자결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설자는 일본 여인으로 시계 기술공인 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홍콩에서 상해로 건너오다가 도적을 만나 아버지와 남편을 잃는다. 설자는 남북을 하고 도적들을 쫓아 복수의 칼을 간 끝에 복수에 성공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자결한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남편을 잃긴 했지만, 여인이 앞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복수가 주인공 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b) 유형과는 다르다. 이야기 구조상 종결이 설자의 죽음으로 처리된 것은 「화중화」나 「명월정」에서처럼 이야기 자체의 논리에 합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종사하는 것이 옳고, 아버지, 남편에 대한 복수가 완수되었으므로 자결하는 것이다. 이 소설 역시 징악의 논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는 대부분 권선징악의 논리를 구현한다. 신소설에서 권선징악은 관념적 차원보다 플롯의 차원에 더 많이 구현된다. 여기서 당대 선/악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소설에서 선/악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대부분 유교적 원리, 즉 유교 이념이다. 그러나 신소설의 경우 이것을 유교 이념이라고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텍스트의 주도적 이념을 구현하는 주인공 여인을 완벽히 유교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²¹⁾

작품 내의 대립소들을 중심으로 작품 내에서 무엇을 선, 혹은 악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선은 악에 비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인물이 어떻게 형상화되느냐와도 관련이 있다. 신소설에서 악인은 사건을 유발하는 인물,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는 반면, 선인은 수동성을 지닐뿐더러 수난을 통해 완성되는 인물도 아니다.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무엇이 악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적 차원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첫째, 본처, 첩, 계모, 계모인 시모, 이복 동생, 재물에 밝은 계집종, 남의 처자를 탐내는 남자 등의 질시, 욕심, 악독, 악행이 악으로 그려진 경우이다. 이 경우 선의 실체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 여인이 유

21) 최시한, 『가정소설연구』(민음사, 1993), pp.126~132 참조.

교적 도의의 화신으로 등장하지도 않을뿐더러, 중용과 절제의 완벽한 인물로 그려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악은 대개 인물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나오며, 관계, 특히 어긋난 가족 관계 중심이 된다. 즉, 잘못 얻어들이거나 처나 첩, 계모 등이 평지풍파의 원인이 된다. 축첩 같은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을 비판하는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악이 잘못된 생활양식이 아니라 인물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은 축소된다. 또 가족 관계 중심이 되고, 오락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방탕한 남편, 기생이나 첩에 빠져 있는 남편, 실성한 시아버지, 딸을 기적에 넣은 아버지, 공부 안 하는 학생 등의 무지, 편협, 방탕함이 악으로 여겨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악은 인물의 본성에 있다기보다 그들의 덜 깨우침, 무지몽매함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개화, 계몽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지닌다. 이 경우 가족관계 중심이기는 하나, 오락성보다는 계몽성보다 초점이 놓인다고 생각된다.

셋째, 도적들, 남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 횡포를 일삼는 시골 아전 등 남을 등치거나 모함하는 어지러운 세태, 땅에 떨어진 도덕성 등을 악으로 그린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소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러 있다. 일례로 「혈의 누」의 경우 악한 인물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한 인물들을 수난 속으로 몰아넣는 세상, 개화되지 못한 국가 등이 악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경우는 가족관계보다 사회적, 계층적 관계 중심이 될 여지를 지닌다.

그러나 주인공 여인이 그러한 세태에 희생되는 경우가 드물고, 희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복수담을 덧붙여 구조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소설로서 적절히 형상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외에 선/악의 틀 속에 넣고 재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들 작품에서는 지나친 욕심, 혹은 물욕,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여자에 대한 적개심 등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는

완전히 악인으로 그려지지 않고 한 인물 속에 선악이 공존하는 찌그러진 인물로 그려져 있다. 「장한몽」, 「두견성」, 「홍도화」 등이 이에 속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는 대개 권선징악이라는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 이야기에서 선은 본성적 악인 것, 개화되지 못한 것, 어지러운 세태, 땅에 떨어진 도덕성 등에 대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더러 유교적 논리의 지배를 받는 것도 있으나 유교 이념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구체제가 붕괴되어 가는 당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제의 붕괴와 함께 구체제의 지배 이념이던 유교 이념도 서서히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신소설에서 유교적 권선징악의 퇴보는 “유교 이념이 지배력을 잃음에 따라 봉건적 신분질서가 와해되어 가되 새로운 가치와 질서는 자리잡히지 않은 20세기 초 한국의 사회적·정신적 상황”²²⁾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권선징악이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결론

본론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난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는 가정적 수난의 비중이 가장 높고, 애정적 수난, 사회적 수난, 자신의 욕망 및 신념에 의한 수난의 순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신의 욕망 및 신념에 의한 수난은 「장한몽」과 「천영정」 두 편뿐이다. 또 수난의 전개 양상을 살핀 결과, 수난의 원인이 인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적 수난의 양상을

22) 최시한, 앞의 책, 130, p.131.

지닌 작품은 별로 찾을 수 없다. 「장한몽」은 내적 수난의 양상을 띠는 점에서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성격을 분석해 본 결과 능동적으로 수난에 대처한 경우는 「장한몽」과 「설중매」뿐이었는데, 이 두 작품은 모두 번안소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여성이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사랑' 혹은 '신학문'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외의 작품에서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셋째, 여인들의 욕망과 수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소설의 여인 수난 이야기에서 인물과 사건, 다시 말해서 인물의 성격과 수난의 성격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여인의 교육정도나 기질 등은 사건 전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인물이 수동성을 지닌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넷째, 수난의 해결 양상에 주목한 결과,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 반드시 조력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인이 수동적 인물이라는 점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여성을 그러한 인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맥락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고, 남성에 의하거나 남성을 통해 행복해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녀는 단지 선택기만 하면 된다. 이런 텍스트는 독자인 여성을 몰주체적으로 봉합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

다섯째, 수난이 해결되는 원리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지배하는 인과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규명해 본 결과 대부분이 '권선징악'의 지배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권선징악의 지배를 받지 않은 작품도 더러 있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 가해자는 한 인물 속에 선악을 모두 지닌 뿔진한 인물로 그려져 있음이 주목된다. 유일하게 비극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근대적 갈등구조를 지닌 선우일의 「두견성」은 주목되는 작품이다.

여섯째, 대립소를 중심으로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의 선악 개념을 분

석해 본 결과, 선은 악에 비해 그 실체가 분명치 않았고, 악은 본성적인 것, 무지몽매함, 어지러운 세태, 땅에 떨어진 도덕성 등으로 그려져 있음이 드러난다.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에서 권선징악은 주제적 차원보다 플롯, 즉 형식적 차원에서 더 많이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구현한 작가들, 혹은 이것을 읽고 즐긴 당대인들의 문화적, 이념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서술체 속의 여인의 정체성, 그리고 텍스트와 독자와의 대화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정체성의 문제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야기 논리의 차원에서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는 ‘선한 인물은 행복해지고, 악한 인물은 응징을 받는다’는 논리를 구현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인물은 뚜렷이 성격화되지 않는다. 그저 ‘선한’ 인물로 그려질 뿐이다. 선한 인물이 수난 끝에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읽은 독자는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행복하게 된다”, 또는 “악행을 하면 언젠가는 응징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독자를 스스로 구현한 정체성에 통합시키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텍스트가 생산하는 정체성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몰주체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체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을뿐더러**, 텍스트 자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를 읽은 독자는 순응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게될 여지가 많다. 또한 인물의 주체적, 능동적인 측면을 그리고 있는 텍스트라 하여도 여인이 추구하는 대상이 ‘사랑’ 혹은 ‘신학문’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문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점은 비판의 소지가 많다. 국권이 상실되고 사회적 질서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논리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는 역사적 문맥을 도외시하고 독자에게 운명론적

이고 순응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신소설의 여인 수난이야기가 지닌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신소설 시대에 여인 수난이야기를 쓰지 않은 작가들 - 안국선, 신채호 등 - 의 위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필자 : 숙명여대 박사과정

〈작품 목록〉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1968)

- 제1권 - 이인직, 「귀의성」 「치악산」 「혈의누」
제2권 - 이해조, 「목단병」 「화세계」 「화의혈」 「구의산」 「빈상설」
제3권 - 이해조, 「봉선화」 「소화령」 「비파성」
제4권 - 최찬식, 「추월색」 「안의성」 「금강문」 「해안」 「춘몽」
제5권 - 이해조 「소양정」, 선우일 「두견성」
제6권 - 구연화 「설중매」, 경제당 「동정추월」, 박이양 「명월정」,
김우진 「유화우」, 작자미상, 「홍도화」 「화중화」 「검중화」
제7권 - 김교제 「모란화」
제8권 - 작자미상 「우중기연」 「설중매화」 「천영정」 「부벽루」
제9권 - 조일제, 「장한몽」²³⁾, 「국의향」
제10권 - 이상협 「재봉춘」, 작자미상 「수일룡」

(총 65편 중 대략 34편 정도)

23) 조일제의 「장한몽」은 신소설에서 이른바 '찬동정'을 일으키는 유일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A study on 'the story of a suffering woman' in the New-style novels

Kim Kyung-Ae

In Korean literary 'the story of a suffering woman' appears frequently as an inner format which functions to construct a discourse. This type of storytelling can be seen in old narrative tales as well as modern stories and could be considered as a Korean typical discourse type.

'The story of a suffering woman' is, as it were, a story in which the plot is about a woman suffering from ordeals. From the nature of the word 'suffering', this kind of stories have presumption of a certain passiveness. The woman in a suffering story should suffer from certain ordeals regardless of her willingness and she becomes happy or unhappy through some kind of life way. And the thing matters in the stories is that what kind of a ordeal it is and how it is overcome. In the light of these facts, examination of the nature and overcoming of a ordeal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logic in the literary works.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ze structures of the suffering-woman stories in the New-style novels so that the norms of the day could be examined, which made the stories produced. In examining the nature of an ordeal and the suffering woman's reacting types, the nature of an ordeal has little to do with the nature of a female character in a suffering-woman story. This fact is related with the fact that a woman is a person of passive nature. Since they are of passive nature, in case of a happy ending, there should exist a supporter or a helper(mostly male).

This fact could result from the social context that a woman is to be happy by a man or men.

In examining the procedure and rules of a ordeal-solving, in most suffering-woman stories the dominant ideology is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In examining the concepts of good and evil in terms of conflicting elements in the stories, good is less clearer to readers than evil, and the evil appears as a thing of basic human nature, unenlightenedness, chaotic social status, lost morality, etc..

In the light of these facts, in approaching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stories, they disregard the historical contexts or backgrounds so that they could lead one to resign himself to his fate. This is the very fact of the limited plot of suffering-woman stories in the New-style novels.

This study is restricted in the suffering-woman stories in the New-style novels, though, the stories are typical traditional Korean literary works so that they are crucial texts and the synchronical and diachronical examination is an important to analyze Korean cultural, social contexts in literary history.